

제3권 (6단원 : 믿음의 사람들)

(제31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 본문 : 창세기 12:1-9
- 요절 :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2)
- 찬송 : 340장(새찬송가 542장), 497장(새찬송가 440장)

사람들은 누구나 풍요로운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또 자손이 번성하여 후대에 그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취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가 곧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1~3)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를 선뜻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를 고려해 볼 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물산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상당한 지위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때까지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길을 떠난다는 것은 일생을 건 대모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 아브라함은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巨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그의 혈통을 이어줄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심으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에도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고 하심으로 앞서의 언약을 재차 확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그가 처한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생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백 세가 다 된 노인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더욱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백세 된 그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선물로 안겨 주셨으며,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3.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떤 시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렵고도 절망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전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히 11:18~19).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땅에 도착한 그는 이삭과 더불어 산에 올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며 그를 불러 제지시키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날부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언약하신 바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아 행함으로 그와 함께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갈 3:6~9).